

전주만의 색깔로 문화경관 조성한다

시, 한옥마을 역사관 건립·풍패지관 등 문화재 17곳 다음달부터 본격 정비 나서

전주시가 다양한 문화경관 조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여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한옥마을 역사관 구축과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정비사업,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정비 등 전통문화도시 관련 각종 문화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한옥마을 관련 자료와 유물 등을 수집해 한옥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옥마을 역사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향후 장소선정과 공간구상 등 역사관 조성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한옥마을의 외연 확대와 대한민국 무형유산의 보고인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활성화에 위해 무형유산원 주변에 대한 지장물 철거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한옥마을 내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개보수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내가 입을 교복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동작구 교복 내리사랑 나눔집터'를 찾은 학생이 기증받은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판매 수익금은 전액 동작복지재단에 기탁해 저소득층 기증에 후원된다.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동작구 교복 내리사랑 나눔집터'를 찾은 학생이 기증받은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판매 수익금은 전액 동작복지재단에 기탁해 저소득층 기증에 후원된다.

5개 노선은 지중화 공사와 인도 정비가 진행돼 걷기 좋은 길로 조성됐으며,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진입게이트 2곳과 가로등 52개도 설치됐다. 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오거리문화광장 정비와 썬지공원도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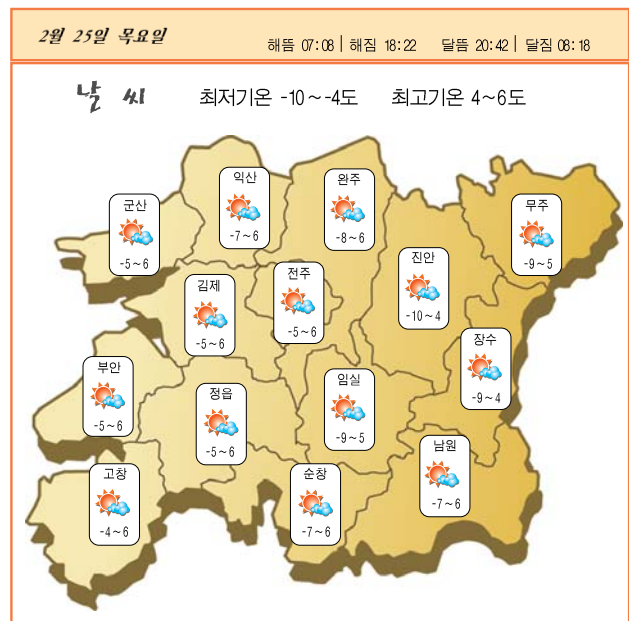
이와 함께 시는 경기전 등 각종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

로 원형을 보존,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24억2,300만원을 투입해 해빙기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경기전(사적 제339호)과 풍패지관(보물 제583호), 풍남문(보물 제583호), 남고산(사적 제294호), 전주향교(사적 제379호) 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등 17곳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재 경관 조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과거 선조들이 아름답게 건축하고 보존해온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문화특별시 전주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장애인 '체험 홈' 수탁기관 공모

전주시, 29일까지 2개소

전주시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전주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위한 체험 홈 운영 사업자를 29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다.

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역량과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한 후, 최고득점을 획득한 법인·단체를 운영사업자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체험 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탈시설 및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친(親) 인권적인 복지 지원 시스템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주시 관내 5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화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그 결과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119명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탈시설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자립복지재단 산하시설 점주자립원과 자립인애원 이용인의 권익보호와 자기결정권을 고려한 전인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설장애인이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내 일반주거에서 4명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형태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사회적응훈련과 직업훈련,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함께 사는 동료와의 협동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공모자격은 주사무소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서 체험 홈을 운영할 주택이 확보된 기관이다.

위탁 운영개소는 총 2개소로 주택 확보 수에 따라 1기관 2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오늘날 장애인복지정책은 시설 위주의 집단적 생활 지원에서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조력자로서 따뜻하고 열정적인 운영사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사업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생활복지과(063-281-519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개성공단 폐쇄로 교복 구입으로

개성공단 폐쇄 여파로 도내 30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평상복으로 입학식을 치를 처지에 놓였다.

교복업체가 원단 등을 개성에 두고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업체를 선택한 학교는 총 45개교다.

이들 중 납품에 지장 없는 학교는 7개교, 하복 주문 학교 8개교를 제외한 30개교가 문제되고 있다.

선주문 형식으로 일부 제작한 물품을 제외한 추가물량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7개교, 군산과 익산 각각 5개교, 김제 4개교, 남원 2개교, 완주 3개교, 장수, 2개교, 순창과 무주 각각 1개교다.

관련 학교들은 졸업생들 교복구입이와 사복 허용 등 발 빠른 대응을 내놓고 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중소·벤처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약 30곳 업체당 최고 1500만원까지

전주시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으로 육성한다.

전주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해 부족한 기술과 자금을 업체당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품 개발 및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총 4억1500만원을 들여 약 3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감소한도기업과 중견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는 지난 2001년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데 따라 2005년까지 지원되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010년과 2011년, 2014년에는 전국 26개 벤처혁신지구 총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주)탑엘이디 등 323개 업체에 37억7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총 157억 원의 매출 발생과 15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복돋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은 "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구발전협의회는 매월 20일~30일까지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19-03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